

로컬뉴스



정읍농기센터 돌발해충 긴급방제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녹두장군휴게소 인근 산림에서 발생했던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긴급방제 활동을 펼쳤다.

이날 기술센터는 전용약제를 사용해 휴게소 뒤편 아카시나무와 밤나무 등 주변에 골고루 살포했다.

기술센터는 "약제처리 주변에 대한 방문객을 통제하고 식당 뒷문을 폐쇄하는 등 휴게소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미국선녀벌레는 포도와 사과, 배, 단감 등 과수뿐만 아니라 과채류, 특용작물, 산림자원 등 수액을 빨거나 배설물에 의한 그늘음 유발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식물이나 자동차에 붙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고속도로휴게소 주변부터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산림을 따라서 이동하여 번성하기도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맞춤형급여 큰 결실 맺어

김제시는 지난해 7월 1일 부터 개편 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김제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 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 6월말 전체 수급자수 7,819명으로 지난해 6월 기준 7,201명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신규대상도 454세대 발굴 어려운 저소득층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의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되어 수급자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맞춤형 급여는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농기센터, 장마 후 공발 철저관리 주의 당부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장마기 이후 철저한 공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기술센터는 "병해충 관리와 인접한 공생산을 위해 철보와 산외 등 주요 공작물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술 지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 경 장마가 끝난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 세균병인 불마름병을 비롯 들불병과 곰팡이병인 검은뿌리썩음병, 역병, 사들음병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세균병인 불마름병과 들불병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비바람이나 땅에서 튀어 오른 비물로 인해 세균이 주변 잎으로 옮겨져 발병하는데 세균병은 전용약제를 사용해 방제가 가능하며, 식물체의 잎이 젖어 있는 시간에는 방제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수확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잡초이다. 작물의 수량감소 뿐만 아니라 농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고 병원균을 옮기는 기주식물이 되므로 잡초 방제가 중요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곰 병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 예보가 있을 경우 미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습해 발생 시 병해충 방제와 제초, 복주기 등 시기별 포장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마을의 이야기를 나눠요"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9월 1일 정읍에서 개막

전국의 마을공동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정읍에서 열린다.

시는 19일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9월 1일부터 3일 간 정읍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c·리하 노피곰 도·사 전국 마을 비추오시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정읍시문화공원과 송죽마을 등 정읍지역 마을과 생고을시장을 비롯한 정읍지역 곳곳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전국의 마을 활동가와 지원기관, 주민, 행정 등 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마을 만들기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정읍시 등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마을대토론회와 마을 만들기 전시 홍보 기획컨퍼런스 마을 여행, 정읍마을축제등도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대토론



회와 기획컨퍼런스 행사는 정읍시 문화공원과 전북과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데, 마을 활동가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열린 토론을 펼치고 고민을 나눌 예정이다.

또 정읍의 대표 마을축제인 '솔티 달빛잔치'와 '원오봉 마을음악회'도 개최되고,

'음식장인을 찾아라'와 '정읍시터 투어', '마을탐방', '마을축삭' 등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현대의 청년들과 고민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포럼'과 '미로전시장' 등 지역과 세대, 마을과 마을을 아우르는 행사도 운영된다.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7시에 정읍시문화공원에서 열린다.

개막식 당일에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함께 마을 만들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공원 곳곳에서 각 마을의 특성 등을 담은 전시회가 이어지며 전국의 공동체들이 준비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마을 만들기의 가치와 실천과제를 탐색하고, 참여자들에게 정읍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마을여행, 그리고 마을축삭을 희망하거나 행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사무국 홈페이지(www.activejngup.ac.kr)나 전화(☎063.531-1373~7)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해경은 신고지를 보건소로 이동시켜 응급처치 후 100톤 급 경비정을 급파하여 1시간여 만에 환자를 격포함으로 후송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해경, 팔 골절 응급환자 긴급후송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부안군 위도면 식도에서 팔 골절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

이날 오전 관광차 식도에 입도한 육 모씨(74, 여, 대전)는 선착장 주변에서 낚시 중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팔이 골절 돼 해경에 신고하였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부안군 위도면 식도에서 팔 골절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

이날 오전 관광차 식도에 입도한 육 모씨(74, 여, 대전)는 선착장 주변에서 낚시 중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오른팔이 골절 돼 해경에 신고하였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19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실무 담당급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비전 실현을 위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6기 반환점을 맞아 연초 업무계획에 의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시정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부서장들의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시정현안에 대한 토의 주제를 선정 부서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마련하여 심도 있게 지역발전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 관심을 끌었다.

"시정 현안토의"는 이건설 시장 주재로 문화·역사·관광 차원에서 가치가 높은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벽골제 연계 포교지구 체계적인 개발방안과 시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금구 급수관 일원으로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토의 과제로 선정하여, "해답"이 아닌

"대안"의 차원에서 부서장들의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견해를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준비되었다.

이건설 시장은 이번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회 자리를 통해, 2호 방조제와 33센터 인근 해안선 10.5km의 정비부흥제 반영과 지적등록 완료로 김제시가 바닷길을 되찾아 진정한 새만금 중심도시로 한발짝 더 다가갔으며, 2016년 8월 준공예정인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 입주기업과의 MOU 체결 등으로 김제시 기업 투자유치의 청신호가 켜지는 등 그동안의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실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 분야에서 더욱 정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경주하는 물론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도 지금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합력비상, 희망찬 미래 창조'를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도 역설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이번 귀농학교는 금산면에서 이로나이를 경작하고 있는 착한농부학교 견학과 백구면의 포도재배 시설인 로컬랜드를 방문견학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장주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으로 농촌의 실제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시, 2박 3일간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호응'

도시민 32명 참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수도권 도시민들이 김제시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민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수도권 귀농학교를 7월 15일부터 17일까지(2박 3일)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귀농학교 운영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영농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 기 위하여 체험유주로 운영하였고 금

산면에서 이로나이를 경작하고 있는 착한농부학교 견학과 백구면의 포도재배 시설인 로컬랜드를 방문견학하여 영농현장에서 농장주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으로 농촌의 실제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200여명이 직접 참여하여 준비한 주민 한마당 화합행사는 김제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귀농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보여주었으며 2부행사로

공주팔주 뮤지컬 프리뷰 공연을 통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상호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수도권 귀농학교에 참여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학교가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소감을 말하였으며 김제시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이 김제시로 귀농하도록 특색있는 귀농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부안군, 여름철 식중독 증세 발생에 비상

지도감독 철저·과태료 처분

결혼식을 앞두고 피로연에서 뷔페를 먹은 하객이 메스꺼움과 두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가 발생 병원에서 여름철 위생 관계당국이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9일 저녁 부안을 한 음식점 결혼식을 앞두고 피로연에서 뷔페를 먹은 하객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다.

이모씨(63·부안을 서위리)는 친구의 자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음식점의 뷔페 음식을 입에 넣어 씹는 순간 음식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화장지로 3번이나 싸서 버리고 식사를 마쳤으나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로 잠을 못 이

루었고 또 다른 이 모씨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증세를 보였다.

이들 중 증상이 심한 1명은 시내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고 자가 요법으로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웨딩업체 관계자는 "하절기다 음식 조리 주의를 주시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부안의 모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471명 중 71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은 학생들이 점심 급식으로 먹은 음식과

급식실 조리기구도 수거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부안군 식품위생관계자는 음식점 현장 방문 이날 조리에 사용된 도마, 행주, 칼 남은 음식 등 환경 가검물에 대해서도 점검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중독사건에 대해 조리기구 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식품위생법 위반 합동단속 '남' 음식점 부안을 원료보관실 비 위생적 관리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비롯하여 8개 업소에 대해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성 향상 및 정서발달을 위한 '이따야 함께 하자' 봉사활동과 정서지원 1대 1 멘토링을 최근 진행했다.

아동 사회성 향상·정서발달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 드림스타트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성 향상 및 정서발달을 위한 '이따야 함께 하자' 봉사활동과 정서지원 1대 1 멘토링을 최근 진행했다.

'아따야 함께 하자'는 드림스타트 협력기 이동과 부안 여고 봉사동아리 'E&I' 학생들이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배려와 실천을 직접 경험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생들이 드림 스타트 아동들에게 1대 1 영어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어학습 지도를 했었다. 오후에는 행안면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드림 스타트 관계자는 "아동의 긍정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배려와 실천의 직접 경험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